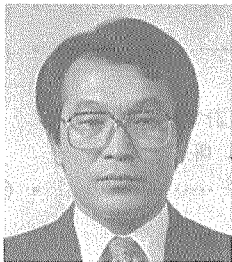


#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



신 동 오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최근들어 북방국가와의 교류 확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어느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전방위 통상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진출시장이 넓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주요한 통상권역별로 적절한 통상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1. 급변하는 '90년대의 통상여건

세계는 지금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고도 본질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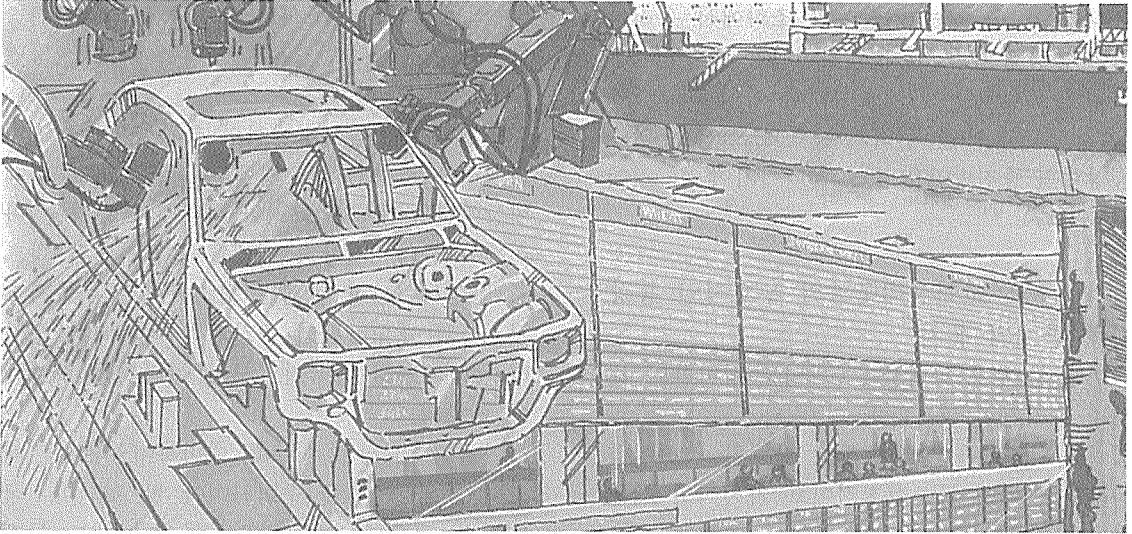
'80년대 말부터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북방개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에 성공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대폭 확충하게 되어 세계 경제권의 재편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걸프사태는 세계를 전쟁의 혼란속에 몰아넣고 있고 향후 걸프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의 앞날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 '90년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UR) 협상의 항배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90년대 새로운 세계 교역질서의 확립이라는 기치아래 '90년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타결할 것이라고 그렇게도 수없이 정치적 의지를 각국이 다짐하였지만 결국은 협상종료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UR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자의든 타의든 우리나라는 주요교역상대국으로부터 UR협상에서 비협조적이며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히 미국으로 부터의 집중적인 통상압력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우리의 주요한 교역파트너이며 아직도 세계의 자유시장의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는 우리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UR협상이라는 다자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미·카 자유무역협정체결, EC통합의



우리경제가 국제화, 개방화를 지향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는 GATT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참여이다.

진전 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는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통상전략도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어떻게 상호보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증대 요구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 이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중에는 경제발전 모델국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시아의 네마리 용, 신흥공업국, 선발개도국 등의 수식으로 우리경제를 지칭하게 되었다.

지난 '89년에는 무역규모 1,238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제1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86년 이후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한때는 흑자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이 연구되기도 하였으며, '80년대 중반('80~'87)까지는 실질 GDP성장률 8.8%를 기록하여 세계 제1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인 위상은 전국민의 땀과 노력의 댓가로 얻어진 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구현이라는 G

ATT체제 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관대했던 세계시장의 이익을 누렸던 것도 사실이며 이에 따라 각국으로부터 우리의 위상제고에 상응하는 적절한 역할 수행과 책임분담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86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후 쌍무, 다자 차원의 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어 '89년, 11월에는 GATT BOP조항 (18조B항) 원용 졸업이 결정 되었고 그동안 미국, EC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 특혜관세(GSP) 수혜를 정지 또는 축소 당하였다.

최근들어서는 개방의 범위와 폭이 점차 확대되어 제조업 중심에서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OECD활동 참여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미국과의 불편한 통상관계도 우리의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요구로 보아야 하나, 그 관심의 깊이가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의 실천의지 등 국민의식 문제에 까지 미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 3. 주요 통상시책 방향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통상 여건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의 조화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상현안 사항을 찾아내어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우리의 능력과 실정에 맞는 통상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우호적인 통상협력 관계의 유지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의 해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타결해야 할 과제이다. 불편한 통상관계를 불식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기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을 준수하는 적극적 자세로 통상협력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때, 약속당시와 이행당시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책이 보완수정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접촉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장개방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무역관련 법규 중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요소라든지 투명성(Transparency) 등에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쪽에서도 상대국시장 진출을 위한 장애요인이 있으면, 이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증진 강화를 위한 진출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나. UR협상에의 적극 참여

우리경제가 국제화, 개방화를 지향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단계는 GATT라는 다자무역체제에의 참여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대외지향정책을 추구하여 우리경제가 이만큼 성장하였듯이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대외무역 부문에 상당히 의존해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GATT체제 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걸프사태로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서 반드시 헤쳐나아가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다.

두번다시 협상과정에서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진행 상황을 종합분석하고 실제 협상여건과 대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의 대세를 수용하면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과제는 최소한으로 추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협상 타결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해야 하겠다.

아울러 UR타결 이후를 대비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관련산업이나 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산업구조 조정방안 등을 강구하여 우리산업이 일층고도화되는 전기로 삼아야 하겠다.

### 다. 통상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통상활동의 전개

최근들어 북방국가와의 교류확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어느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전방위 통상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진출시장이 넓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주요한 통상권역별로 적절하면서도 특징있는 통상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미국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176억불을 수출하여 총수출 중 거의 30%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의 심화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 특히 수출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우리상품에 대한 보복조치로 연계될 때, 우리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금년도에는 우선 양국과의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대화채널의 다양화 및 미국내 각 분야에 대한 홍보 특히 Grass-Root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다.

### 일본

경제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무역불균형과 일본의 기술이전 문제이다. 물론 이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현격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시각차의 해소없이 한·일 경제협력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과의 교역은 무역적자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55.8억불에 이룸으로써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문제는 무역적자 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 너무 편향적이고 장기적인 적자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측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력을 보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일본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무역불균형 개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틀속에서 민·관 협의 채널 활성화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다. 또한 지난해 대통령 방일시 합의한 협력사업,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자동화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EC

'92년말 EC가 통합되면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된다. 더우기 동구권의 개방화와 함께 EFTA 및 동구권을 포함하는 유럽경제권(European Economic Space)에 대한 구상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EC통합까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므로 EC통합과 관련한 사전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C통합 이전에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통합이후의 유럽 요새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동구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EC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마찰도 증가 추세에 있어 통상마찰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EC국가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무역장애 요인이 대부분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한 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새로이 미국에서 통상 현안으로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기경보로 간주하여 사전에 통상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북방

그동안 닫혀있던 북방국가와의 교류물꼬가 이제 트인 이상, 새로운 미래시장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북방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나, 아직도 북방교역은 초기추진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북방국가와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 진출기반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북방국가의 외환부족 등을 고려하여 경험자금 지원 및 수출보험확대 등을 통한 시장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중국, 소련 등 북방국가와의 협력은 지리적으로나 자원면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의 잠재성이 풍부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율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업체간 진출분야의 전문화 유도로 북방시장 진출의 질서를 확립해 나아가는 것도 시장진출 전략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아·태 경제협력 강화

지리적, 경제적 연대감에 의한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은 대외교역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렇다할 지역경제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89년 11월에 출범한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는 역내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EC 등 지역주의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생하였는데, 금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각료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서울 각료회의를 계기로 21세기 아·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아·태 경제협력 추구에 있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등 역내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역내 경제협력 추구는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등 경제블록화를 지향해서는 안될 것이며, 자유무역주의, 시장경제원리라는 GATT 다자간 협력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91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

### The 22nd Korea Electronics Show (KES '91)

#### 1. 목 적

- 2000년대 첨단전자산업으로 향한 기반구축
- 교역상대국들간의 균형적인 수출입증대 도모
- 최신 전자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품질 향상
- 바이어들의 제품선호에 따른 신제품개발 촉진

#### 2. 기 간

- 1991. 10. 17(목)~10. 22(화) 6일간

#### 3.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1, 3층 및 별관 대전시실

#### 4. 참가안내

##### 가. 전시품목

- 산업용 전자기기
  - 정보기기, 유·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 전자용용기기, 계측기, 의료용 전자기기, 기타 산업용기기

##### ○가정용 전자기기

- 영상기기, VTR, 음향기기, 컴포넌트, 전자시계
  - 가사자동화기기, 가정용 전기용품, 전자악기류 등
- ##### ○전자부품
- 반도체, 전자관, 수동부품, 기구부품, 기능부품
  - 부품제조생산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등

#### 5.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외국업체 : '91. 2. 21~4. 30 (70일간)
- 국내업체 : '91. 4. 21~5. 20 (30일간)
  - 신청기간내일지라도 전시가용면적 소진시 접수마감한다.

##### 나. 접수장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업무부 전시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 (전자회관내)
  - 전화(직통) : 553-8725, 563-7377

다. 주최 : 상공부 주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